



건강하고 아름답게

— 할리우드 육체미가꾸기

— 신중사업

영화의 메카 할리우드에서는 최근 스타의 육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다듬어 주는 신중사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 업종은 실로 다양해서 웨이트 트레이닝·보디빌딩에서부터 요가·지압·마사지·침술·성형·심령술 등 부지기수다.

라이프지에 의하면 「워크 아웃」이란 미용체조책을 펴내서 선풍을 일으킨 제인 폰더도 실은 유명한 지압사 르로이 페리박사의 도움으로 변함없는 몸매를 유지하고 있다. 스포츠의학의 선구자격인 페리박사는 그가 고안해낸 독특한 체육용구로 폰더의 몸매를 교정해주고 있으며 그밖에 잭크 니콜슨과 워렌 비티도 단골로 만져준다.

존 트래볼타의 건강미 넘치는 체격을 뒀 받침해주고 있는 덴 아이색슨도 이 방면에서 알아준다. 영양식과 운동을 조화시켜 육체미를 유지케하는 그는 앤 마저릿, 제미리 커티스, 빌리 크리스탈 등을 도와주고 있다.

보디 빌딩으로 이름난 제이크 스테인펠

드 형제들도 단골손님이 많은데 저명인사로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해리슨 포드 등이 끼여 있다.

또 스트레칭의 권위자 스테판은 제시카 랜지, 비안카 재저, 래 다운 총등의 몸매를 날씬하게 유지시켜 준다.

서양인의 스트레스를 동양식으로 풀어준다는 요가도 인기다. 요가전문가 앨런 핑거는 다이애너로스와 라켈 웰치를 지도하고 있는데 남아프리카 출신인 그는 요가에 몰입하면 마음의 평정과 창조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소피의 선택」과 「나인하프 위크스」의 제작자 케이스 바리쉬도 핑거의 문하생이다. 6개월전만 해도 요가를 반신반의 했던 그는 1주일에 3일씩 지도를 받고 있으며 요가를 배우고 나서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하다고 자랑한다.

시크교도인 시리 달마 카우어양은 마사지로 환복되고 있다. 동양과 스웨덴식 기술을 익혔다는 그녀는 다릴 한나, 시드니 포이티어, 리처드 기어, 스티브 굿텐버그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다. 한시간반의 마사지 비용이 75달러(6만7천원)인데도 셀 틈이 없다는 비명이다.

기계와 음향을 이용해서 심령치료를 하는 데이비드 벨코프박사도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그는 마음이 육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잘 다스리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침술사인 마고 조단양은 침으로 피부를 탄력있게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금년 47세가 된 수잔 스트라스버그는 그녀의 침을 맞고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자랑이다. 역시 침술가인 마이클 머레이씨는 제임스코번의 신경통을 다스려주고 그를 단골로 확보했다.

鎌狀 적혈구

貧血 치료에 개가

페니실린 복용하면 사망률 줄어

겸상적혈구빈혈증을 지니고 태어난 아기들이 매일 페니실린을 복용할 경우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결과 밝혀졌다.

美 연방겸상적혈구질환연구소의 마릴린 개스틴 박사(女)가 발표한 연구결과를 통해 『겸상적혈구 빈혈증에 걸린 아기들에게 생후 3년간 페니실린을 투여할 경우 미국에서만 이 병으로 인한 매년 150~180명의 영아사망을 막을 수 있을것』 이라고 밝히고 『이 질병에 걸린 전세계 아기들 가운데 3세이하의 아기들은 페니실린 치료를 받아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뉴욕시 인터페이스 메디컬센터의 스티븐 다이어먼드박사도 『지금까지 많은 아기들이 겸상적혈구 빈혈증으로 목숨을 잃었다』면서 『페니실린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 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매년 20만명의 아기들이 겸상적혈구빈혈증세를 지닌채 태어나고 있으며 생후 감염된 아기수는 60,000~70,000명, 사망아기수는 18,000~20,000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 질병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흑인아기들로 밝혀졌는데 전문가들은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60만명의 흑인아기들 중 거의 2,000명 정도가 이 병에 감염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골초여성 頸部癌 높아

—비흡연 여성보다 위험 2배이상—

하루에 4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는 여성흡연자는 비흡연여성보다 경부암에 걸릴 위험이 2배이상 높다고 미국립암연구소의 한 연구보고서가 주장했다.

美 의학협회지 최신호에 발표된 이 연구보고서는 또 40년이상 흡연경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도 골초여성과 마찬가지로 경부암에 걸릴 위험이 보통여성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만약 흡연여성이 금연을 하게되면 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경감되며 뒤늦게 흡연을 시작한 여성의 경부암 발암률도 보통 여성보다는 높다고 말했다.

한편 미네소타大 연구소는 흡연량을 줄이기 위해 니코틴 껌을 씹을 경우 이 껌에 중독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담배를 끊기 위해 부득이 담배대신 이 껌을 씹는 경우 양을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